IFE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
IFES 브리프
RELATE TIMELY INFORMATION ON NEWS RELEVANT TO NORTH KOREA

NO.2021-11 2021.04.12

제6차 당세포비서대회 논의내용 평가와 전망

임 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
peter@kyungnam.ac.kr

이전 발행자료

› [IFES BRIEF 2021-07]
「중국해경법」 시행의 의미와 과제
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

› [IFES BRIEF 2021-08]
시·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: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 평가 및 전망
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

› [IFES BRIEF 2021-09]
한미 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(SMA) 타결에 관한 소고
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재욱 교수

› [IFES BRIEF 2021-10]
북한의 군사행동 재개 평가와 전망
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

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
(03053)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2
TEL. (02)3700-0700
FAX. (02)3700-0707
http://ifes.kyungnam.ac.kr
E-Mail: ifes@kyungnam.ac.kr

1. 개요

o 노동당 8차 당대회(2021.1.5.-12)에 이어 제6차 당 세포비서대회가 4월 6일에서 8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

- 8차 당대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의 직접적전투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세포비서들을 정치·실무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중시하고 당대회에 맞추어 5년에 한번씩 세포비서대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당규약에 규정

* 제5차 세포위원장(=비서)대회는 7차 당대회가 열렸던 2017년의 12월 21일에 개최

- 북한은 이번 세포비서대회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과 전당의 조직사상적 강화 차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

- 이번 대회에는 생산현장에서 사업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문의 당세포비서들, 도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책임일군들, 시, 군과 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군들 모두 1만명이 참가

* 2017년 5월 당 제7차대회를 통해 개정한 당 규약은 당원 5~30명까지 있는 단위에 조직하는 '세포'는 "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을 이어주고 군중을 당의 두리(주위)에 묶어 세우는 기본단위이며,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 전투단위"라고 설명

o 김정은 당 총비서는 1일차에 개회사, 3일차에 결론과 폐회사를 전달

- 김정은 당 총비서는 당세포와 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바로잡아야 할 편향과 결함들에 대하여 지적하고, 결론에서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

- 주요 과제 제시와 더불어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, 명확한 행동지침 등을 제시

o 대회 2일차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용원 조직비서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회의 지도하고, 토론들이 진행

- 세포비서들은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제시한 세포강화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분석·총화

o 대회 1일차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이 '당세포의 전투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을 무조건 결사집행하자'를 제기

2. 주요 논의 및 결정 내용

o 김정은 총비서는 '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에 대하여'라는 결론을 통해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과 우선적 과제를 제시

- 기본사상은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

- "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시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"라고 언급

o 당중앙의 비전과 의도 제시와 더불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당세포비서들의 역할 강조

- 김정은 총비서는 "당중앙은 앞으로의 5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5년으로, 강산이 또 한번 변하는 비약의 5년으로 만들고자 한다"고 언급

- 당조직체계안에 세포비서들은 매일 매 시각 당원대중과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일하며 직접 당정책을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실천해나가는 정치일군이기 때문에 역할을 더욱 강조

- 또한 당세포들은 군중의 동향과 정신상태, 생활형편 등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주문

- “군중과 늘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당세포비서들의 발언과 행동은 사람들의 심리에 즉시적으로 작용하며 군중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세포비서들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란한 정치활동가가 되어야 하고,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 해결하고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가지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선구자들이 되어야 한다”고 요구

o 당을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 전반을 활력있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세포들이 단결을 중시하고 모든 당원들을 인간적으로 단합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주문

-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것, 이것이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규정

o 김정은 총비서는 결론에서 전당의 세포들을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기 위하여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

[표1] 당세포들의 10가지 주요 과업

	과업의 내용	세부 과제
1	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	■당의 노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신속하고도 정확히 전달침투 - 당보학습을 중시하고 정상화 - 매일 《로동신문》독보를 제도화하고 사설을 비롯한 중요기사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
2	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	■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, 애국주의교양, 반제계급교양, 도덕교양 - 수입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자력갱생교양
3	당규약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, 규범화	■당규약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며 생활 - 당규약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주 조직하여 당원들이 당규약의 조항들을 정상적으로 되새겨보면서 당생활에 철저히 구현 ■당규약상규범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진행 -당세포총회 한달에 한번이상 개최 -당생활총화 제때에 무조건 진행 : 자기비판, 호상비판, 올리비판을 통해 단합과 이색적 사상경향과 요소들을 극복
4	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	■모든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기풍 확립

		-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, 례외로 되는 당원이 있을 수 없으며 이중규률 불허용 -간부일수록 평당원의 자세에서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
5	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	■당원들이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서 자신들 앞에 부과된 임무와 과제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
6	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	■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옳게 가지도록 하는데 주력 -생산공정과 설비들을 개건하고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, 재자원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발명, 기술혁신을 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방법론 있게 추진 -특히 탄광과 광산, 공장, 기업소의 당세포들에서 선진적인 과학기술, 능률높은 생산방법들을 도입하는데 적극 달라붙으며 농촌당세포들에서는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풍을 계속 고조
7	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데 주력	■입당대상자장악과 추천에서 당적원칙,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보장 ■입당대상자들에 대한 교양과 단련을 심화
8	청년교양, 자녀교양에 특별한 관심 -청년교양문제는 당조직들이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할 최중대사 -청년교양문제를 당과 혁명,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,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	■정신문화생활과 경제도덕생활을 바르게, 고상하게 해나가도록 늘 교양하고 통제 ■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며 동맹사업을 적극
9	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넘치게 할 것	■공고한 일심단결의 지반인 집단주의 미덕과 미풍을 발휘 ■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좋은 일은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나서는 기풍과 호상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고상한 도덕풍모가 지배하도록 분위기 조성
10	반사회주의,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추진	■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반사회주의,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표현 형태와 위험성, 해독적 후과에 대해 집중 설명 및 투쟁 고무 ■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, 세도와 관료주의,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추진

자료: 김정은, “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”, 『노동신문』, 2021년 4월 9일 보도내용을 토대로 요약정리

o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

- 당성, 원칙성, 정치성, 책임성, 이신작칙, 창발성, 군중성, 인간성, 진실성, 낙천성, 도덕성, 청렴결백성

- 노동신문 사설(4.10)은 12가지 기본품성은 당의 훌륭한 초급정치일군, 세포사업, 세포단합의 작전가, 조직자,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근본담보라고 주장

3. 평가와 전망

o 김정은 총비서는 폐회사에서 “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, 특히는 수십만 당세포비서동지들의 심장을 믿을뿐”이라며 인민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최대한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 **고난의 행군**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선언

* 지금까지 김 총비서의 공개연설 중 '고난의 행군' 표현이 확인되는 사례는 2013년 3월 전국경공업대회 연설, 2015년 7월 제4차 전국노병대회축하연설, 2016년 5월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등

- 이번에 고난의 행군을 결심한 배경은 과거와는 다른 맥락과 의미임을 주목. 즉 과거의 고난의 행군은 사실상 국가가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포기하고 각자도생형 자력갱생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아래 추진

- 지금 강조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은 대북제재의 장기화,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 등 구조적으로,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래에서도 국가가 모든 당원들의 희생적 헌신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이끌어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적극적, 능동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의미

- 즉 노동당이 주도하는 국가적, 계획적, 과학적 자력갱생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

* 김정은 총비서는 폐회사(4.8)에서 “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,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《고난의 행군》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”고 언급

o 이런 맥락에서 이번 당 세포비서대회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목표달성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한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

- 참가자들은 당세포강화에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성과여부가 좌우된다는 중대한 사명감을_공유

* 지난 2017년 5차 당세포위원장(=비서)대회에서는 2017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달성을 강조

- 당 세포비서대회는 모든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노동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개최, 이는 결국 5개년 계획, 즉 최대한의 경제건설 성과 도출이 목표

o 이번 세포비서대회 내용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밝혔던 당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강화 목표 수행을 충실하게 반영

-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,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당사업의 핵심

과제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

- 특히 세대교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세포비서들에 대한 사상적,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

- 당세포들에게 주어진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품성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필요

o 북한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, 이에 따른 민심동요 막기 등에 총력을 쏟고 있음을 확인

-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내 적폐청산과 제도적, 인적 혁신 목표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에 대한 사상적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

- 다만 이런 사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친인민적이고, 친현실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

- 특히 당원들과 주민들을 8차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반사회주의, 비사회주의 현상과 더불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, 세도, 관료주의,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주목

- 앞으로 외부 정보와 문화에 민감한 청년들에 대한 사상통제, 교양사업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

o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(2021.3.3-3.6)에 이어 열린 이번 당세포비서 대회의 논의 내용과 결과에 비춰볼 때 향후 북한은 제재, 코로나19, 대미관계 등과 무관하게 내부결속, 일심단결, 집단주의 일변도의 방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

- 4월 청년동맹, 5월 직업총동맹, 6월 사회주의여성동맹, 7월 농업근로자동맹 대회 등 내부결속을 위한 행사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

-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되, 대내 문제, 특히 당의 조직사상적 역량 강화를 통해 5개년 계획의 1차연도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

- 이는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대내외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,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

IFES 브리프 2021-11 2021년 4월 12일

발행처: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
주소: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2 (03053)
전화: (02)3700-0700 팩스 | (02)3700-0707
홈페이지: http://ifes.kyungnam.ac.kr

-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,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- IFES브리프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수시 발간하는 e-출판물입니다.